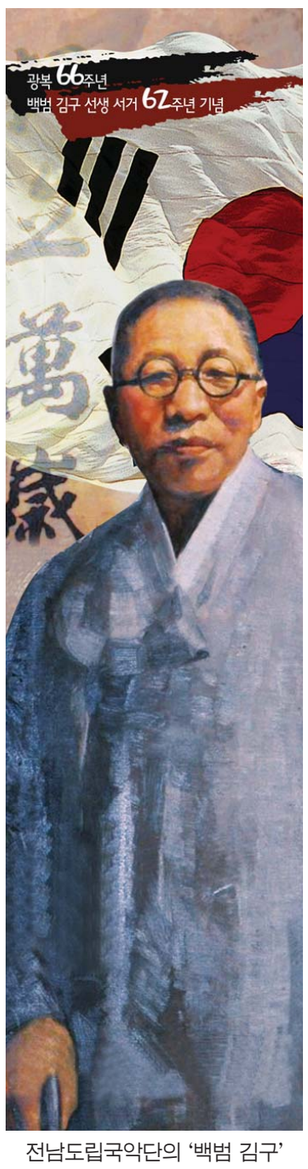
무대서 만난 역사 속 인물 '색다른 감동'



전남도립국악단의 '백범 김구'

역사 속 인물들을 예술작품으로 복원해내는 작업들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특히 무대 작업을 통해 다시 주목받게 된 인물들은 관객들에게 진한 감동을 준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던졌던 이순신 장군과 완전한 자주 독립과 통일된 국가를 위해 생을 바쳤던 백범 김구 선생의 삶이 발레와 창극으로 다시 태어났다.

광주시립무용단(단장 김유미)은 창작 발레 '성웅 이순신'을 무대에 올린다. 11일 오후 7시30분, 12일 오후 5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강강술래'의 원무를 기본으로 한 발레극 '성웅 이순신'은 지난 1992년 광주문예회관 개관 1주년 기념품으로 초연됐던 작품으로 광주 뿐 아니라 서울 국립극장과 부산시민회관에서도 공연돼 호평을 받았었다.

문예회관 개관 20주년 기념작으로 다시 무대에 오르는 '성웅 이순신'은 단장 김유미씨가 재구성했으며 의상과 무대장치 등도 보강, 새 옷을 갈아 입었다.

작품은 2막 4장으로 구성돼 있다. 1막에서는 백의종군하는 이순신과 백성들의 함성, 강강술래가 그려지며 2막은 노량해전의 승전보와 이순신의 죽음, 그리고 애도의 강강술래로 구성돼 있다.

주인공 이순신 역은 조재욱·오윤환씨가 맡았으며 여자 주역으로는 구윤지·신송현씨가 출연한다.

'성웅 이순신'은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제2회 대한민국 발레 축제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티켓 가격 2만원, 1만원, 5000원. 문의 062-613-8244.

전남도립국악단이 복원해낸 인물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 주석을 지낸 백범 김구 선생이다.

국악단은 (사)동편제 판소리보존회(이사장 송순섭)와 함께 제작한 창극 '백범 김구'를 무대에 올린다. 17일 서울 용산아트홀 대극장, 26일 목포시민문화센터.

작품은 일제 강점과 분단 등 비극적인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김구 선생의 삶을 장중한 스케일로 풀어냈다.

국가보훈처와 광주지방보훈청의 후원을 받아 만들어진 '백범 김구'는 모두 2막 8장으로 구성돼 있다.

광주시립무용단 '성웅 이순신'
11일 문예회관 대극장

전남도립국악단 '백범 김구'
17일 서울 용산아트홀
26일 목포시민문화센터

광주시립무용단의 '성웅 이순신'

1막은 백범의 청년기 삶과 감옥생활, 투옥과 탈옥, 방랑의 과정을 100여명의 출연진이 힘찬 노래와 역동적인 춤사위로 그려냈다.

'인연', '내 이름은 김구', '동지여' 등으로 구성된 2막은 임시 정부에서의 활동, 신탁통치 반대. 통일된 하나의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애쓰다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묘사했다.

송순섭씨가 예술총감독으로 참여했으며 원작은 김병준씨가 썼다. 작창은 정철호, 연출은 강미진씨가 맡았다.

관람료는 무료. 문의 061-280-582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순간이 마주치는 '마음이 머무는 풍경'

강남구 작품전, 17~23일 원갤러리

고즈넉한 새벽 강과 화사한 꽃을 화폭에 담아오고 있는 서양화가 강남구씨가 17~23일 광주 예술의 거리 원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빛과 시간의 흔적'을 주제로 화사한 색채와 리듬감 넘치는 화면 구성이 돋보이는 신작을 발표한다.

꽃 그림을 고집해온 그는 꽃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배경을 의도적으로 취사선택, 꽃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고 있다.

피사체에 초점을 맞춰 배경을 흐릿하게 사진을 찍는 '아웃포커싱' 기법을 빌려와, 꽃을 도드라지게 그린 뒤 주변은 안개에 싸인 듯 희뿌옇게 처리해 원근감을 살렸다.

이를 통해 도드라지는 생명력을 포착하고 자연의 의미를 천연의 색으로 채색했다.

강씨는 조선대 미대를 졸업한 뒤 동경국제소형판화 트리엔날레, '아대한민국전', 국제교감예술제 등 단체전에 참가했으며 19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무등미술대전 심사위원, 광주시전 심사위원과 운영위원을 지냈다. 문의 062-222-6547.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공간-생명력'

광주여성재단, 16일 '여성 정치참여 토론회'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이윤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광주여성재단 8층 강의실에서 '여성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호남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오미란(광주여성재단 사무총장)과 허명숙(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장)씨가 발표자로 나서 광주전남 및 전북 여성 정치참여 현황과 과제를 각각 발표한다.

이어 정당공천 및 선거과정, 여성 정치 참여의 실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현직 여성의원들인 유현주(전남도의원), 홍인화(광주시 의원)이 지정토론에 나선다.

또 김원홍(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영이(광주전남 여성농민연합 정치위원장)씨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해 토론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화로 다시 태어난 광주 구도심

푸른길 창의학교 발표회, 12일 동구문화센터

쇠락해가는 구 도심에 문화 바람이 불었다. 예술가들과 주민들이 어우러져 문화의 꽃을 피워냈다. 푸른길 창의학교를 통해서다.

(사)우리문화예술원(이사장 김태훈)이 진행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푸른길 창의학교'가 1년간 열심히 만들어낸 결과물을 소개하는 발표회를 갖는다. 12일 오후 3시 광주 동구문화센터.

참가자들은 광주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는 '푸른길'을 주제로 '동화로 태어나는 푸른길'(미술), '사진&미술&영상으로 담는 푸른길', '알song 달song 아카펠라로 부르는 푸른길, '손짓 발짓 몸짓, 그리고 푸른길 이야기'(국악)를 진행했다.

공연 프로그램으로는 '푸르미가 태어났어요', 아카펠라로 부르는 '만화 주제곡 메들리', 선반 풍물놀이 등이 열리며 동화책 '우와~푸른길이다' 삽화와 푸른길 창의학교 관련 사진도 전시된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무진농악단의 다섯번째 발표 무대도 함께 마련됐다. 무등산 자락 주민들로 구성된 무진농악단은 지금은 희미해져 버린 무등산 농악을 복원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이날 공연에서는 승무북, 앉은반 풍물놀이, 시렁설장구, 선반풍물놀이 등을 만날 수 있다. 문의 062-523-047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수능 스트레스 시립미술관서 푸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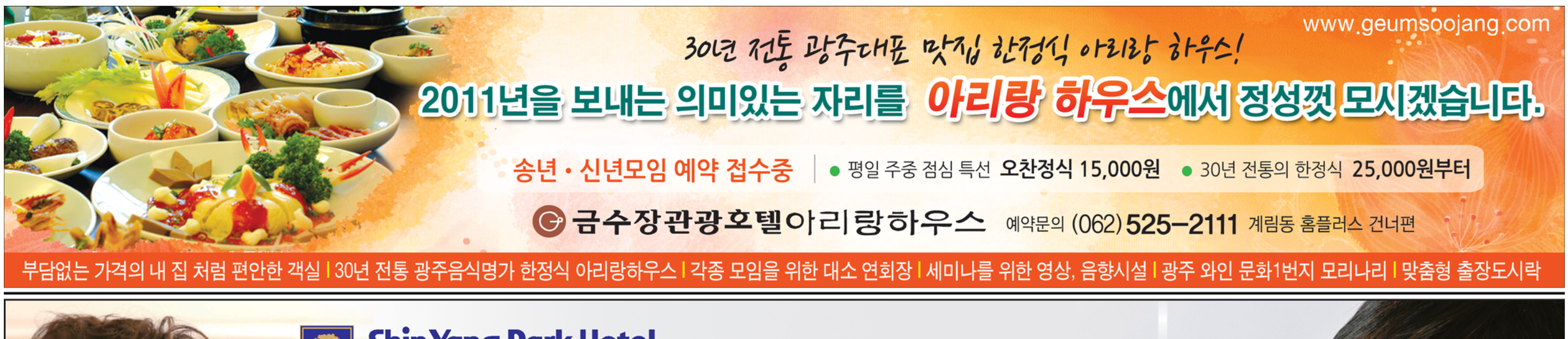
13일까지 '인상파…'전 등

"시험 스트레스 블록버스터 전시 보면서 풀어요."

시험이 끝난 뒤 들뜨기 쉬운 고3 수험생을 위해 광주시립미술관이 인상파 이후 서양미술의 거장'전과 '요셉보이스'전을 오는 13일까지 연장했다.

'인상파…'전은 마네, 피카소, 샤갈, 미로, 달리, 앤디워홀, 로이 리히텐슈타인 등 현대미술의 슈퍼스타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 모은 전시다.

근대성의 탄성, 자아의 반영, 20세기 미국 미술을 주제로 크게 3부로 구성됐다. 제1부에는 19세기로 접어들면서 미술의 흐름을 바꿔놓은 낭만주의, 인상주의, 후기인상주의, 상징주의 작품을 선사한다.

또 독일의 국보급 작가 요셉 보이스의 작품 362점과 퍼포먼스 등을 담은 사진 작품 30여 점을 함께 선보이는 '요셉 보이스'전 청소년들이 놓치면 후회하는 전시다. 입장료 4000~8000원. 문의 062-613-714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